

Louis J. Prieto  
*Messages et Signaux*

Presses Univeritaires de France, 1972

愼 翼 晟

1. 序 論

筆者가 앞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Prieto의 *Messages et Signaux*, P.U.F., 1966에 대한 書評이라기 보다는 紹介와 解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G. Mounin은 이것에 대해 대단히 훌륭한 書評을 *Lingua* vol. 22, No.4 (1969)에 發表한 일이 있다.

이것을 紹介하고 解説하려고 하는 理由는 이름은 *Messages et Signaux*라고 되어 있지만 이 책이 記號學의 基本的 原理에 對해서 쓴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歐美諸國에서는 이미 十餘年전부터 記號學이란 말이 構造主義와 나란히 一種의 流行語가 되다시피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記號學이 長足の 發展을 했느냐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普及開始의 段階에 있을 뿐이다. 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거의 紹介조차 안 되어 있는 實狀이다. 記號學(*Sémiologie*)이란 術語가 이말의 近代의 意味에서 생겨 난 것은 Ferdinand de Saussure와 더불어이다. 記號學은 주로 言語學보다는 더욱 範圍가 넓은 하나의 科學의 計劃으로서 생겨 난 것이고 人間이 使用하는 記號體系의 總體를 研究하는 것을 任務로 삼아 왔다. Mounin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著書 *Indroduction à la Semiologie*에서 '恣意的으로 決定된 價値를 다루는 科學'인 記號學은 信號・記號 또는 象徵에 의한 모든 전달(*communication*) 體系의 全般的인 科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人文科學에 永續的인 寄與를 하게 되었다. Saussure以後 記號學은 두개의 큰 方向에 따라서 研究가 깊이 進行되고 있다. 意味作用(*signification*)의 記號學을 代表하는 學者가 R. Barthers 이라면 전달의 記號學을 代表하는 學者는 E. Buysens와 Prieto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두 學者는 記號學의 確固한 基礎를 構築했다. 이들의 記號學은 무엇보다도 먼저 言語에 의해서가 아닌 전달의 모든 體系의 機能의 記述을 目標로 삼고 있으므로 포스터로부터 交通信號의 標識, 버스 또는 호텔방의 번호, 기(旗)에 의한 國際海上信號에 이르기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Prieto는 Mounin도 그의 書評에서 말한 바와 같이 先驗的으로 理論 또는 假設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다음에 事實에 맞추는 것과 같은 것을 쓰지 않은 진정한 意味에 있어서의 探究者이다. 그러므로 그의 研究는 한발 한발 천천히 發展해 갔다. 여기서 筆者가 그 解説을 시도한 *Messages et Signaux*란 冊은 高等敎養을 目的으로 삼은 것이지만은 理解하기에 相當히 어려운 冊이다. 그러나 이冊이 다루고 있는 것은 廣範・豊富하고 完全하다.

Prieto는 이冊에서 眞正한 記號學의 土臺가 되는 것은 徵候와 記號라는 基本的 두 概念

사이에 나타나는 對立이라고 말했다. Prieto는 徵候에 關한 科學的 定義를 내린다. 즉 徵候라는 것은 ‘直接 知覺될 수 없는 다른 事象에 관하여 어떤 것을 알려주는 直接知覺되는 事象’이다. Prieto는 ‘信號는 徵候와는 달리 人工的 徵候·하나의 指示를 주는 知覺可能事象, 그러므로 意圖에 의해서 생겨나는 事象’이라고 定義한다. Prieto는 이 冊에서 信號가 成立하기 위해서는 ‘發信者가 受信者에게 메시지를 傳達하려고 하는 意圖를 가지고 있고 受信者가 그 意圖를 理解한다’는 心要性이 있다는 事實을 알아 쳤다. Prieto의 出發點은 言語記號의 內容의 體系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探究하는 것이었다. 그는 1960년부터 이 機能을 分析하기 위해서 非言語的인 다른 體系까지도 考慮하게 되었다. 결국은 Prieto는 一種의 構造的 意味論부터 차츰 차츰 記號學으로 옮겨간 것이다. 研究對象이 言語記號에서부터 信號로 옮겨 간 것이다. 이 冊의 理論은 緊密하게 構造化된 理論이다. 이 冊의 特徵은 理論의 展開가 公理를 追求하는 것 처럼 嚴密하다는데 있다. Louis Hjelmslev가 Prolegomena에서 試驗한 것처럼 Prieto는 항상 基礎的 用語를 明確하게 定義하고서 出發한다. 예를 들면 記號라는 것은 ‘어떤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래스 및 記號表現클래스가 因子클래스로 分解되고 各其사이에 對應關係가 보이는 경우에 이 두개의 因子클래스는 記號를 構成한다’와 같은 定義가 그러한 것이다. 그는 이책에서 論理學과 集合論의 術語를 자주 쓰고 있다.

이들 術語들은 記號學을 하나의 科學으로 만들기 위한 概念形成에 있어서 반드시 必要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記號의 機能은 어떤 內的論理를 따르고 있기때문에 排除·包括·交差와 같은 論理學의 用語에 의해서만 正確하게 記述될 수 있다. Prieto는 論理學과 전달사이의 眞正한 結合을 再發見하고 그것을 또 밝힌 것이다. 그가 Saussure, Hjelmslev, Martinet와 같은 言語學者들이 즐겨 사용했던 術語들을 單純히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Prieto는 標識의 機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標示는 항상 어떤 部類의 標示이다. 그러나 部類는 그 補足部와의 關連속에서만 部類이다. 또 反對로 그 部類의 標示는 必然的으로 그 補足部の 標示를 包含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의 部類는 하나의 部類만을 標示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兩개의 補足部類를 標示한다.

이상의 것은 記號는 ‘示差의이고 相對的’이라는 Saussure의 理論에서부터 나온 것은 事實이지만 Prieto는 Saussure의 理論을 더욱 發展시켜 그 理論을 論理的으로 證明했다. Prieto는 第二部 第一章 費用의 節約에서 Martinet가 “La double articulation du langage,” (T.C.L.P., 194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상세하게 記述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特別한 類型의 情況體驗에 呼應하는 恣意的記號의 體系라는 것이 생각될 수 있다.

Prieto가 ‘전달에 있어서 狀況의 觀念이 中心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重要한 發見이다. 전달 行爲에 있어서의 情況의 機能的 性格의 論理的인 證據를 밝힘으로써 Prieto는 技術的 問題 以上을 解決했다고까지 생각된다. Prieto의 著書內容을 차례차례로 순서에 따라서 解説하고자 한다.

## 2. 第一部 機能

Prieto는 6章에 걸쳐서 機能의 메카니즘을 다루었다. 機能의 메카니즘은 信號의 機能(메시지 傳達)을 다하는 것을 保證하는 메카니즘이다.

## 2. 1. 第一章 記號行爲

信號라는 것은 메시지전달에 쓰이는 道具를 말한다. 이것이 메시지 전달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하나의 社會關係가 여기서 樹立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信號가 그 任務를 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問題가 있다. 첫째 것은 信號가 發信者의 傳達의 意圖를 受信者에게 알리는 것이고 둘째 것은 受信者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問題이다. 이것을 Prieto는 ‘受信者가 그 信號에 特定된 메시지를 歸屬시키는 行爲’라고 부른다.

하나의 信號에 의해서 許容되는 값지 않은 메시지의 數는 대단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受信者가 特定된 메시지를 選擇하는데 成功하고 그 메시지를 信號에 歸着시킬 수 있는 것은 信號가 언제나 얼마인가의 特定된 ‘情況’과의 關連속에서 發信되기때문이다. 受信者는 信號가 許容하는 얼마간의 메시지중에서 情況에 의해서 가장 有利하게 된 메시지가 發信者가 傳達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틀림 없다고 判斷하게 된다. 第二部에서 檢討되는 ‘經濟性’과의 根本的 差異는 機能의 메카니즘에 관해서는 社會集團의 구성원사이의 一致가 必要不可決하다는데 있다.

## 2. 2. 第二章 指示의 메카니즘

指標와 信號와의 區別은 전달(communication)의 意圖의 有無에 달려 있다. 信號는 전달의 意圖가 있는 ‘人工的인 指標’로서 定義된다. 指標 即 指示를 提供하는 事象은 全的인든 部分的인든 이러한 不確實性을 除去해 준다 그러나 指標라는 것은 다만 實現되는 唯一한 可能性을 指示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實現 可能性群의 클라스를 指示할 뿐만 아니라 實現되지 않은 可能性群의 클라스를 指示한다는 意味에서 正과 負의 兩面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클라스라는 것은 絕對的인 實體가 아니고 이것이 成立하는 것은 다른 또 하나의 實體와의 關係에서만 可能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實例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어느 圖書館에서 言語學關係의 책을 따로 分離시키기 위해서 이들 書籍을 책상 위에 놓았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그 圖書館이 所有하고 있는 言語學關係의 書籍이 決定되는 셈이 되지만은 여기서 다른 또 하나의 補클라스가 決定된다. 이것은 言語學關係가 아닌 즉 書架에 남은 書籍으로 된 補클라스이다. 하나의 補클라스를 決定한다는 것은 그 ‘補클라스’까지도 同時에 決定하는 것을 意味한다. 全體集合이라는 것은 두개의 相補的인 補클라스의 論理的 和와 같은 것이다. 指示라는 것은 한쪽의 全體集合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相補的인 補클라스로의 여러가지 分割과, 다른 쪽의 全體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같은 分割과의 相關關係에서부터 생겨 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指示內容의 面에서 實現되는 可能性이 이러한 特定된 補클라스에 屬하고 그 結果 그 補클라스에 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指示하는 것의 面에서 實現되는 可能性이 이러한 特定된 補클라스에 屬하고 따라서 그 補클라스에 屬하지 않는다는 것이 認定되기 때문이다. 特定된 補클라스에 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쪽의 全體集合의 分割과 다른 쪽의 全體集合의 分割사이의 對應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두개의 全體集合에 관하여 이것들을 相補的인 補클라스로 分割하는 것은 指標이다.

## 2. 3. 第三章 記號表現클라스, 記號內容클라스, 統合記號, 코드

記號行爲에 있어서 주어지는 指示에는 다음과 같은 세 種類가 있다. 第一의 指示는 ‘告

知指示' 즉 發信者의 메시지 傳達의 意圖를 알리는 指示이다. 이 指示는 信號가 發信되었다는 事實 그 自體에 의해서 주어지는 指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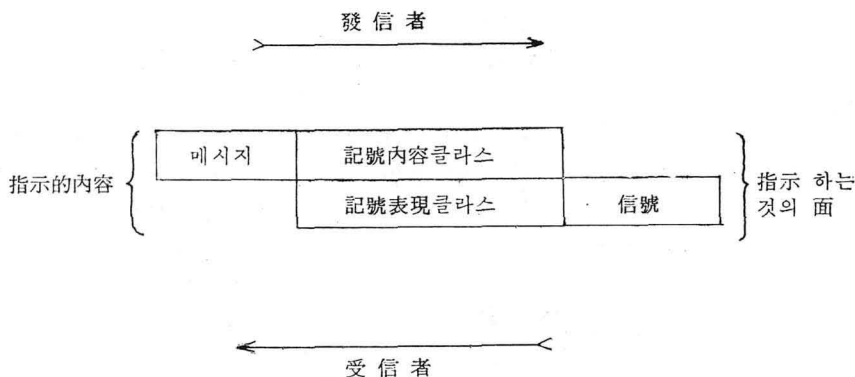
第二의 指示는 '表意指示'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信號가 特定된 統合記號의 記號表現클래스의 구성소(members)라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傳達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記號表現클래스에 對應하는 記號內容클래스의 구성소라는 것을 알린다. 이 指示에 있어서 指示內容의 面에 登場하는 全體集合은 '意味內容의 場'이라고 불린다. 特定信號 또는 이것과 同一 코드에 屬하는 다른 信號群에 의해서 許用되는 모든 메시지의 集合은 이 코드의 '意味內容의 場'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構成한다. 이것에 對해서 指示하는 것의 面에 登場하는 모든 可能性의 總體가 構成하는 全體集合이 記號의 場이다.

앞에서 말한 記號表現클래스와 記號內容클래스는 抽象의 實體라는 點에 있어서 具體의 實體인 어떤 記號 또는 메시지와 다르다. 다른 分野보다도 더우기 嚴格하게 抽象과 具體의 問題를 規定하는 이 區別은 現代言語學의 큰 收穫중의 하나이다. 더우기 이 區別은 記號學의 根抵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區別의 必要性을 처음 提言한 學者는 Ferdinand de Saussure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有名한 術語를 만들었다. 즉 '랑그'는 抽象의 實體의 分野이고 具體의 事象의 클래스群의 分野인데 反해서 '파롤'은 랑그가 實現된 具體의 事象의 分野이다. 어떤 信號가 發信되는 것에 의해서 이 두개의 全體集合이 相補的클래스群으로 分割된다. 먼저 '意味內容의 場'은 ① 正의 클래스(=그 信號가 許容하는 메시지群)과 ② 負의 클래스(=그 信號가 排除하는 메시지 群)으로 分割되나 正의 클래스쪽이 그 信號의 '記號內容클래스'이다 '記號의 場'도 ① 正의 클래스와 ② 負의 클래스으로 分割되고 正의 클래스쪽이 그 信號의 '記號表現클래스'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 記號內容클래스와 記號表現클래스라는 두개의 클래스로 構成되는 記號學의 實體가 '統合記號'이다. 그리고 '코드'라는 것은 '統合記號'의 體系라고 定義된다. Prieto는 一般的인 '指示體系'와 '코드'의 根本的 差異를 指摘한다. 코드를 構成하는 統合記號는 사전에 人間이 參加함이 없이 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條三의 指示는 '情況'이 주는 指示이다. 情況은 表意指示에 의해서 明白하게 된 記號內容클래스에 屬하는 메시지 群중에서 發信者가 傳達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最終적으로 指示한다. 指標로서의 情況은 普通 信號의 記號內容클래스에 의해서 構成되는 全體集合을 두개의 相補的클래스로 分割하지마는 正의 符號를 가진 클래스의 구성소는 하나 뿐이다. 따라서 情況이 주는 指示는 發信者가 傳達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관해서 受信者側이 가지고 있는 不確定性을 全적으로 除去해 준다. 이상과 같은 세 종류의 指示를 거쳐서 受信者는 發信者가 傳達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規定한다. 그렇게 해서 記號行無는 完了된다.

#### 2.4. 第四章 記號行爲의 成功과 失敗

發信者와 受信者는 記號行爲가 이루어지는 方向이 反對이다. 發信者는 하나의 記號表現클래스의 全 구성소중에서 그가 發信하는 記號를 골라낸다. 受信者쪽은 하나의 記號內容클래스의 全 구성소속에서 그가 그 信號에 歸屬시키는 메시지를 골라낸다. 따라서 具體부터 抽象으로의 移行은 發信者에 있어서는 指示內容의 面에서 이루어지고 受信者에 있어서는 指示하는 것의 面에서 이루어진다. 抽象부터 具體로의 移行은 通信者에 있어서는 指示



하는 것의 면에서 이루어지고 受信者에 있어서는 指示內容의 면에서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記號行爲의 成功과 失敗를 考察한다면 成功하는 경우는 發信者의 記號行爲의 出發點이 되는 메시지와 受信者의 記號行爲의 終點이 되는 메시지가 同一한 경우이다. 當然한 것이지만 記號行爲는 반드시 成功한다고는 할 수 없다. 本質적으로 두 類型의 失敗가 있다. 그중의 하나는 ‘誤解’라고 불리고 있는 것으로서 發信者가 傳達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受信者가 記號에 歸屬시키는 메시지가 同一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난다. 또 다른 類型의 失敗는 受信者가 記號에 特定메시지를 歸屬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것이 可能한 理由는 記號에 歸屬되는 同等한 權利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두개(또는 여러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受信者가 最終적으로 메시지를 選擇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 原因으로서는 發信者가 情況을 잘못 判斷하는 것, 表意指示의 실수, 兩者가 같은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코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른 變種을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이 생각될 수 있다. 이상의 原因중에서 마지막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그 코드 使用者의 한쪽이 別個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개의 統合記號를 다른 쪽이 ‘同一視’ 하는 경우이다.

## 2.5. 第五章 關與的特徵

Louis J. Prieto는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시종일관 Martinet의 지도를 받았으며 원어인 *trait pertinent*을 Prieto 도 Martinet를 따라서 그대로 쓰고 있다. 第五章도 音韻論의 方法論의 一般化의 實例중의 하나이다. 그는 記號學的인 記述이 自然言語의 音韻學的 記述과의 比較가 可能하다고 보고 있다. 音韻論에서 成功의으로 展開된 構造模型이 記號論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는 關與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메시지는 具體的 實體이고 記號內容클래스는 抽象的 實體이다. 前者는 後者를 實現하고 있을 뿐이다. 클래스는 實體로서 存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自己를 成立시키는 것은 다른 또 하나의 클래스와의 關係에 있어서 뿐이다. 記號內容 記號表現 둘다 하나의 相對的인 클래스로서 規定된다. 어떤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래스의 具體的 實現인 메시지는

모두 必然的으로 이 記號內容을 構成하고 있는 全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메시지 속에 나타나는 特徵의 무리중에서 이것을 傳達하기 위해서 使用되는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라스를 構成하고 있는 것이 그 메시지의 關與的 特徵의 무리이다. 이것과는 달리 그 메시지를 同一記號內容 클라스의 구성소인 다른 메시지의 무리와 다르게 하는 다른 特徵의 무리는 非關與的 特徵의 무리이다. Prieto는 다음과 같은 實例를 들고 있다. 어떤 記號行爲에 있어서 ‘發信者에게 그의 鉛筆을 돌려주라’라는 命令인 메시지를 傳達하기 위해서 *Rendez-le-moi*라는 統合記號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메시지가 나타내는 ‘單數(直接目的補語)’라는 特徵은 그 關與的 特徵이다. 이에 反하여 바로 그 메시지가 나타내고 있는 ‘鉛筆(直接目的語補語)’라는 特徵은 그것의 非關與的 特徵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關與的 特徵들을 發見하기 위해서 使用되는 方法이 交換(commutation)이다. 가령 어떤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라스의 具體的 實現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特徵을 다른 特徵과 交換하더라도 그 결과 같은 記號內容클라스에 屬하는 메시지가 얻어진다면 이들 特徵은 非關與的의다. 交換해서 다른 記號內容클라스에 屬하는 메시지가 얻어진다면 이들 特徵은 關與的의다. 어떤 클라스일지라도 그것을 取扱하는데 있어서는 그 클라스의 具體的 實現들을 考慮하느냐 또는 이들 具體的 實現들이 나타내는 特色들을 考慮하느냐에 따라서 두가지 종류가 可能하다. 첫째 경우는 문제의 클라스가 그 外延을 考慮하는 것이고 둘째 경우는 그 內包를 考慮하는 것이다. 要컨대 어떤 메시지의 무리는 하나의 記號內容클라스의 外延을 構成하고 어떤 特徵의 무리는 그 內包를 構成한다. 이와 같이 어떤 信號의 무리는 記號表現클라스의 外延을 構成하는데 對해서 어떤 特徵群은 그 記號表現클라스의 內包를 構成한다.

## 2.6. 第六章 記號內容클라스群 및 記號表現클라스群사이 에 나타나는 論理的 關係

Prieto는 클라스의 一般的 問題로서 두개의 클라스사이 에 나타나는 論理的 關係를 檢討하고자 이것을 記號內容클라스끼리 또는 記號表現클라스끼리의 관계으로의 應用을 試圖하고 있다. 두개의 클라스사이 에 나타나는 이들 關係는 ‘同一’ ‘包攝’ ‘交叉’ ‘排他’라는 네개의 關係이다.

‘두개의 統合記號’가 가지고 있는 記號內容클라스群사이에는 同一關係는 없다. 同一關係가 存在한다면 두개의 統合記號는 同一한 統合記號가 된다. 두개의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라스群을 連結하는 關係로서의 同一關係는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나 包攝·交叉·排他關係가 成立한다는 것은 原則으로서 可能하다.

예를 들면 *Donnez-moi le crayon*이라는 統合記號와 *Donnez-le-moi*이라는 統合記號가 가지고 있는 記號內容클라스끼리의 사이에는 包攝關係가 있다. *Donnez-moi le crayon*의 記號內容클라스의 具體的 實現인 메시지群은 모두 *Donnez-le-moi*의 記號內容클라스의 具體的 實現도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Donnez-moi le crayon*의 記號內容클라스는 ‘鉛筆(直接目的補語)’이라는 特徵을 가지고 있으나 이 特徵은 *Donnez-moi le noir*의 記號內容클라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特徵이다. 이것과 反對로 後者が 가지고 있는 ‘黑(直接目的補語)’이라는 特徵은 前者가 가지고 있지 않은 特徵이다. 前者의 內容클라스와 後者の 內容클라스와 關係는 交叉關係이다. *Donnez-moi le crayon*과 *Donnez moi le cahier*이라는 두개의 統合記號가 가지고 있는 各기 記號內容클라스사이의 關係는 排他關係이다. 왜 나하면 前者는 ‘鉛筆(直接目的補語)’이라는



特徵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後者에는 없는 特徵이고 反對로 後者가 가지고 있는 ‘노우트(直接目的補語)’라는 特徵은 前者에는 없는 特徵이다. 하나의 코드(code)안에 그 記號內容클래스끼리 包攝關係 또는 交叉關係 또는 排他關係를 맺고 있는 統合記號가 있다는 것은 可能하다. 그러나 주어진 코드의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래스사이에 이들 모든 關係가 나타난다는 것은 必然的인 것은 아니다.

記號表現클래스사이에 나타나는 論理的 關係는 記號內容클래스사이에 나타나는 關係와는 상당히 다르다. 두개의 統合記號의 記號表現클래스사이에 나타나는 關係는 排他關係뿐이다. 예를 들면 *Donnez-moi le crayon*이라는 統合記號와 *Donnez-le-moi*이라는 統合記號가 각기 가지고 있는 記號表現클래스끼리의 關係는 排他關係이다.

### 3. 第二部

#### 3. 1. 第一章 값에 관한 經濟性

이 章에서 研究하려고 하는 諸메카니즘의 一部는 바로 表意指示에 관한 메카니즘의 學習을 더욱 편하게, 그 使用을 더욱 쉽게 하는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 그 덕분에 表意指示에 드는 努力이 줄게 된다. 결국은 앞에서 말한 메카니즘의 一部는 메시지 傳達을 더욱 값싸게 하려고 하는 메카니즘이 된다. 表意指示의 값 低下를 목표로 삼는 코드의 經濟性의 諸 메카니즘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同一한 原理에 기초를 두고 있다. 即 表意指示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사이의 對應關係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可能한 것인데 이들 클래스가 더욱 더 큰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클래스의 論理的 乘法에서부터 생긴다는 原理가 바로 그 原理이다. 이 原理가 適用되면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래스 또는 記號表現클래스가 그것보다 더욱 더 큰 ‘因子클래스’라고 불리워지는 클래스로 分析되고 이들 記號內容클래스는 因子클래스의 論理的 積이 된다. 理解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이 原理를 數字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만약 100의 統合記號가 分節되지 않는 경우에는 各信號 또는 메시지를 각기 100개씩의 記號表現클래스와 記號內容 클래스로 類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이들 統合記號의 兩面의 클래스가 因子클래스로 分析可能하다면 名其 10개씩의 클래스로 된 두개의 體系와의 關連에 依해서 類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코드에 있어서 더욱 더 큰 클래스의 論理的 乘法에서부터 생겨나는 클래스群은 利點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100의 클래스와의 關連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類別操作은 다만 한번으로 끝나지만은 10의 클래스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두번 操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類別關係의 單純化와 類別回數는 反比例이다. 言語가 必要로 하는 모든 記號表現클래스를 論理的 乘法에 의해서 얻기 위해서는 音素를 두개 이상 가질 必要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그 音素數가 두개인 言語는 絶對로 없다. 諸言語는 한편으로는 類別體系를 單純化하려고 하는 傾向과 다른 한편으로는 信號群의 類別回數를 너무 많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傾向사이에서 하나의 ‘理想圈’ 근처에서 均衡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理想圈을 벗어나면 한편에서 얻은 利益이 다른 한편에서 잃은 것을 補償 못 하는 結果가 된다. 어떤 코드의 表意指示에 관한 메카니즘에 있어서 더욱 더 큰 클래스 論理的 乘法에서부터 생겨나는 클래스群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이들 메카니즘使用의 前提가 되는 類別作業이 보다 쉽게 된다는 點에 있어서 有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메카니즘의 學習은 결국은 그것을 만들고 있는 統合記號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作業이 더욱 쉽게 된다는 事實에 있어서

도 '利點'이 나타난다.

어떤 코드에 있어서 統合記號의 記號表現클래스가 기초를 두고 있는 因子클래스와 그 記號內容클래스가 土臺를 두고 있는 因子클래스사이에 對應關係가 있는 경우에 이 코드는 '第一分節'을 나타내고 그 統合記號는 '分節된다'라고 말한다. 第一分節은 表現指示의 값에 關한 메카니즘 중에서 가장 效率이 높은 메카니즘이다. 이 分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單純한 類別體系에 의해서 操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코드의 機能의 메카니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信號클래스와 메시지 클래스사이에 對應關係의 數까지도 줄일 수 있다.

第一次分節의 結果 생기는 實體는 '記號'라고 불리워진다. 이것은 Martinet가 말하는 '記號素'와 거의 同一한 概念이다. 이 記號의 兩面도 統合記號의 兩面과 마찬가지로 記號表現클래스, 記號內容클래스라고 불리워지지만 이 記號表現클래스쪽이 더욱 分節되면 '表現形成素'라는 因子클래스가 된다. 이것은 言語의 '音素'와 거의 같은 概念이다. 우리는 이러한 分節을 第二分節이라고 말한다. 表現形成素는 統合記號 또는 記號의 記號表現클래스의 因子클래스이고 더우기 各記號클래스의 因子클래스에 對應하지 않는 것이라고 定義된다. 記號의 記號表現클래스와 表現形成素는 이 點에 있어서 本質적으로 다르다. 이 상에서 우리는 Prieto의 獨創의인 面을 찾아 볼 수 없다. 言語學의 基礎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理論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은 Prieto의 새로운 着想이라고 생각된다. 코드는 그 構成要素인 統合記號에 關한 한 社會制度로서의 特色을 가지고 있으나 코드중에는 이러한 社會的 性格이 없는 것도 있다. 그것들이 바로 記號와 表現形成素이다. 결국은 이것들의 目的은 表意指示의 값 低下이지만은 社會制度的인 性格을 가지지 않은 經濟性的의 메카니즘의 '部品'을 이루는 實體이다. 이것은 두개의 事實에 있어서 認定된다. 하나는 어떤 記號行爲의 發信者와 受信者가 使用되는 統合記號의 構成要素인 記號 또는 그 統合記號의 記號表現클래스가 基因하는 表現形成素에 關해서 一致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事實이다. 어떤 記號行爲가 成功하기 위해서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은 當者들 사이의 一致만이다.各自가 그 統合記號를 어떻게 分析하는 것과는 거의 關係가 없다. 實例를 든다면 佛語의 mon을 하나의 記號素으로서 보는 사람과 두개의 記號素m-(mon, mes)와 -on(ton, son)으로 分析하는 사람이 있다할지라도 서로가 전달(communication)에 失敗할 걱정은 없다. 이것은 表意指示의 값에 關한 經濟性的의 메카니즘이 社會的 性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3.2. 第二章 量에 關한 經濟性

量에 關한 經濟性이 목표로 삼는 것은 그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메시지의 傳達를 保證하는데 있어서 必要以上인 表意指示를 受信者에게 주지 않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있다. 바꿔 말한다면 經濟性的의 메카니즘은 受信者가 가지는 不確性을 完全히 除去하는 일의 量을 分配하여 記號가 負擔하는 몫을 줄이고 情況에 맞기는 몫을 늘리는 것을 目的으로 삼는다. 즉 우리는 이 메카니즘때문에 記號에 依해서 주어지는 表意指示의 量을 그 記號行爲가 이루어지는 情況에 맞추어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情況이 그 일의 더욱 큰 몫을 떠맡게 된다. 信號에 의해서 주어지는 表意指示는 최종적으로 特定된 메시지의 選擇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情況이 주는 指示가 덧붙어서 비로소 唯一한 메시지가 確定될 수 있다. 表意指示量에 關한 經濟性的의 메카니즘이라는 것은 情況에 맞추어서 表意指示量을 調整하여 그 負擔을 輕



減시키려고 하는 메카니즘에 지나지 않는다. 信號에 의해서 주어지는 表意指示量を 記號行爲가 이루어지는 情況에 맞추어서 調整하는 것이 어떤 코드(code)에서는 可能하고 다른 코드에서는 可能하지 않다는 事實은 그 코드를 構成하고 있는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래스 사이에 나타나는 論理的 諸關係에 달려 있다. 사실은 이 調整은 그 記號內容클래스가 排他關係를 맺고 있는 統合記號만으로 되어 있는 코드에 있어서는 不可能하다. 이 調整이 可能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코드안에 각기 記號內容끼리가 包攝關係를 맺고 있는 統合記號와 각기 記號內容클래스끼리가 交叉關係를 맺고 있는 統合記號가 있어야 된다. 言語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코드는 아마 그 記號內容클래스끼리가 包攝關係를 맺고 있는 統合記號와 그 記號內容클래스끼리가 交叉關係를 맺고 있는 統合記號가 存在하는 唯一한 코드일 것이다. 이러한 코드에 있어서는 特定된 메시지는 複數의 統合記號의 記號內容클래스에 속한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傳達할 수 있는 統合記號는 여러개이다. 이러한 타입의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統合記號에 關한 發信者의 選擇은 傳達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目的達成을 위해서 使用可能한 여러가지의 統合記號중에서 하나를 選擇해야 되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傳達해야 될 메시지가 ‘發信者의 검은 鉛筆을 發信者에게 주어라는 命令’이고 使用되는 코드가 佛語라면 이 메시지를 考察하는 것만으로서 發信者에 依한 特定統合記號의 選擇이 說明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코드는 이 메시지 傳達에 쓰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複數의 統合記號가 存在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Donnez-moi mon crayon noir*, *Donnez-moi crayon*, *Donnez moi le mien*, *Donnez-moi le mien*, *Donnez-moi le crayon*, *Donnez-le-moi* 등이다. 사용되어야 될 統合記號의 選擇은 둘째로 記號行爲가 이루어지는 情況에 달려 있다. 記號行爲가 이루어지고 있을때 受信者가 發信者의 검은 연필을 사용하여 自己의 노트에 쓰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Donnez-moi mon crayon noir*, *Donnez-moi mon crayon*, *Donnez-moi le crayon*이라는 세개의 메시지에서 어떤 것이든 메시지 傳達을 保證하고 있다. 選擇을 決定하는 第三의 最後의 要因의 經濟性을 求하는 傾向이다. 特定 메시지傳達을 위해서 使用이 可能하고 記號行爲가 행해지는 情況에서 이 行爲의 成功을 保證하는 統合記號중에서 發信者가 選擇하는 것은 메시지가 나타내는 特徵群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關與시킬 수 있는 統合記號, 要컨대 이것을 使用하면 受信者에게 주는 表意指示가 가장 적어도 된다고 생각되는 統合記號이다. 앞에서 말한 情況下에서는 이 메시지 傳達을 위해서 選擇되는 統合記號는 아마 *Donnez-moi le crayon*일 것이다. Prieto는 言語라는 코드의 特色을 더욱 檢討하기 위해서 A,B,C,D라는 假設의 코드를 考察한다. 코드 A는 그 記號內容클래스끼리 排他關係를 맺고 있는 코드이고 B,C,D는 그 記號內容클래스끼리 排他, 包攝, 交叉關係를 맺고 있는 統合記號로 되어 있는 코드이지만은 그중의 B는 情況에 맞추어서 表意指示量の 調整이 完璧한 코드인데 對해서 C,D는 各其 記號內容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特徵群이 一方의 依存關係 또는 相互依存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調整이 完全하지 않은 코드이다. 言語의 경우는 이 假設의 코드의 C와 D에 해당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言語는 ‘完璧한 調整’과 ‘統合記號의 數’라는 서로 容納되지 않은 兩極사이에서 理想的인 均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指適된다.

#### 4. 第三部 記號의 系統學

Prieto는 코드의 分類에 관해서는 興味가 적은 것 같다. 分類에 관한 것은 마지막 13페이지

지 뿐이다. 코드의 分類의 基準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機能의 메카니즘’이지라는 이 基準에 의하면 正常的인 경우와 周邊的인 경우가 區別될 뿐이다. 왜냐하면 機能의 메카니즘에 관해서는 어떠한 코드일지라도 本質적으로 同一하기 때문이다. 코드끼리사이에서도 가장 相違한 點이 發見되는 것이 經濟性的의 메카니즘이라는 觀點에서 본 경우이다. 첫째로 값에 관한 메카니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네개로 分類될 것이다. 卽 ① 分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드: 단 하나의 統合記號로만 되어 있는 코드도 必然적으로 이 類型에 屬한다. 왜냐하면 唯一한 統合記號는 記號로 分解될 수 없다는 것 그 記號表現클래스가 表現形成素으로 分解될 수 없다는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② 第二次分節만을 가진 코드: 모스(morse) 信號의 코드, 또는 點字等도 第二次分節은 있지만은 第一次 分節이 없는 코드이다. ③ 第一次分節만을 가진 코드: 이러한 코드의 統合記號는 記號로 分解되지마는 그 記號의 記號表現클래스는 表現形成素으로 分解될 수 없다. ④ 二重分節을 가진 코드: 이 類型에 屬하는 코드의 統合記號는 記號로 分析될 수 있고 記號의 記號表現클래스도 表現形成素로 分析될 수 있다. 이 類型的의 코드중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言語라는 코드이다. 言語 외에 이 코드에 屬한다고 생각되는 코드가 若干있다. 그 중의 한 例가 電話局의 電話番號이다. 記號의 目錄과 目錄의 結合規則은 有限하다. 그러나 目錄과 結合規則에 의해서 생겨나는 統合記號의 數는 事實上 無限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코드의 가장 좋은 例가 言語이다. 言語는 發信者가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같은 메시지를’ 傳達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여러개의 統合記號’를 사용할 수 있는 唯一한 코드이다. 그러므로 言語만이 發信者에게 選擇의 余地를 준다. 이 余地를 준다는 것이 아마도 獨特한 스타일을 가지고서 주어진 操作을 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는 一般的 條件이다.

151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접수: 1982. 3. 22)